

記入體와 標目の 連結方案

金 致 雨*

目 次

- I. 序 論
- II. 個人著者表示에의 附記와 標目
- III. 團體著者와 標目
- IV. 書名表示와 標目
- V. 結 論

I. 序 論

目錄에서 한글과 漢字를 同一視하여 個人著者나 團體著者가 한글로 標目이면 記入體에서 상황에 따라 漢字表示를 省略하며, 漢字書名이 標目으로 되면 일반적으로 그 위에 한글 表記를 생략하는 것은 單一文字를 사용하는 歐美의 目錄規則의 方法을 그대로 踏襲한 것으로 우리의 實情에 맞지 않는다. 우리는 한글과 漢字를 공용하지만 個人名이나 團體名의 公式的인 名稱은 거의 漢字로 되어 있으며,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그러한 個人著者나 團體著者是 圖書에 漢字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記入體에서 그대로 表示를 해주어야 한글 標目과 연결이 되어서 정확하게 식별된다. 書名도 역시 漢字 爲主로 되어 있으므로 漢字書名이 標目으로 되면 그 위에 한글로 表記하여서 標目과 表記를 연결되게 하여야만 排列과 檢索이 용이해 진다.

이와 같이 漢字로 된 個人著者나 團體著者를 記入體에서 생략하는 것이나 漢字로 된 書名 標目的 表記를 생략하는 것은 別個의 文字인 한글과 漢字를 完全 同一視 한데서 온 것이다. 그 原因은 KCR 修正版의 母體인 初版을 制定할 때 제일차적으로 참고한 것이 美國圖書館協會 目錄規則 1949 版 및 이의 追加改訂版이고 제일차적으로 참고한 것이 바티칸圖書目錄規則 1948 版으로 이것은 로마자 하나만을 사용하는

* 釜山産業大學校 圖書館學科 助教授

도서의 목록작성을 위한 규칙인데 그 원리를 그대로 답습하여서 이러한 문제점이 야기된 것이다.

狀況이 우리와 같은 日本은 漢字와 かな를 共用하지만 목록에서 標目은 かな로 바꾸지 않고 그 圖書에 나타난 대로 漢字로 記載하고 그 위에 배열되는 文字로 表記를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問題點은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이 方法은 語句가 길든지 짧든지 別行으로 表記해 주어야 하므로 目錄카드 스페이스(Space)의 浪費가 심해서 좋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方法이 1964년 KCR 初版이 나오기 전까지 많이 使用되었으나 現在는 별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KCR 初版이나 修正版에서는 標目を 한글로 하여 일본목록 규칙과 같은 폐단을 없애기는 하였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한글과 漢字의 文字上的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은 해결하지 못하였다. 이를테면 個人著者の 本名이 한글로 標目이고 記入體의 著者表示는 號나 其他稱號로 된 경우 漢字形의 이름, 卽 本名을 확인할 수 없다. 또 團體著者가 한글로 標目이 되면 대개 記入體의 著者表示를 省略하기 때문에 그 漢字形 名稱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前者는 本名을 著者表示에 附記하고 後者는 漢字形 名稱을 그대로 기재해 주어야 標目과 記入體가 완전하게 連結된다. 漢字書名이 標目인 경우 한글표기를 생각하는 것이나 副出指示에서 漢字로 된 書名을 단지 「서명」이라고만 기재하는 것은 역시 문제이다. 왜냐하면 漢字書名에는 어려운 漢字나 여러 가지 음으로 읽히는 漢字가 있어서 그 書名을 확인하는데 支障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漢字書名標目이나 副出指示에는 그대로 한글로 表記해 주어야 표목과 표기가 連結이 된다.

다행이 이러한 문제점은 KCR 3版에 와서 많이 改善된 상태이나 아직 未洽한 點이 없지 않다. 그래서 本稿에서는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KCR 修正版과 앞으로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KCR 3版을 中心으로 하여 그와 같은 문제점을 分析檢討하여 보고 記入體와 標目の 連結方案을 마련하여 보고자 한다. 아울러 著者の 參照카드作成方法과 著作役割語表示 및 書名標目中 문제점이 되는 冠稱의 處理方法에 대해서도 그 解決方案을 찾아 보고자 한다.

II. 個人著者表示에의 附記와 標目

KCR 修正版 94條(著者表示에의 附記)에 의하면 「標題紙에 匿名 또는 號만으로 表示되어 있는 圖書로서 著者標目이 本名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著者表示 다음에 角括弧에 묶어서 익명 또는 호라고 附記한다」¹⁾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렇게 하면 標目으로 된 著者の 戶籍上 漢字形 이름(本名)을 알 수 없게 된다. 그 예를보면 아래와 같다.

[이, 광수]

無情, 春園[號]著.

이 경우 標目인 이 광수의 漢字形 이름을 확인할 수 없다.

KCR 修正版 36條(匿名圖書)에도 같은 問題點이 있다. 거기에 의하면 「匿名圖書라 함은 著者가 自己의 本名이 아닌 다른 이름을 使用하여 出版한 圖書를 말한다. 匿名으로 出版된 圖書라 할지라도 그 著者의 本名을 알 수 있는 것은 本名을 標目으로 하여야 한다」²⁾로 되어 있고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다.

조, 동탁, 1920 -

志操論, 趙芝薰[익명]著.

I. 조 지훈. II. 서명.

이것도 역시 조 동탁이란 標目的 漢字形 이름을 알 수 없다. 물론 親知라든가 같은 分野에 從事하는 사람들이야 알 수 있겠지만 餘他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이 광수나 조 동탁 같은 著名한 人士일지라도 그 漢字形의 이름을 쉽게 알 수 없는데 하물며 그렇지 못한 大部分의 著者는 더욱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本名이 한글로 標目이 되었다면 반드시 漢字形의 이름을 著者表示에 附記하여 서로 連結시켜 주는 것이 效率的이다. 앞에서 든 두가지 예를 이와 같은 方法으로 바꾸어 보면 아래와 같다.

이 광수

無情, 春園[李光洙]著.

1) 韓國圖書館協會 編, 韓國目錄規則, 修正版, 서울:同協會, 1970. p.71.

2) 上掲書, p.27.

조 동탁

志操論, 趙〔東卓〕芝薰 著.

이렇게 하면 標目은 단번에 錯誤없이 확인된다. 막연히 著者表示에다 「호」나 「익명」이라고 附記하면 本名이 漢字 爲主로 된 우리의 立場에서는 分明하게 識別이 되지 않는다. 日本目錄規則의 方法대로 한다면 標目을 그 圖書에 나타난 漢字대로 記載하고 그 위에 로마자나 方자로 表記를 해주기³⁾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漢字를 사용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은 생기지 않으나 스페이스(Space)의 浪費가 심한 短點이 있다. 다행히 KCR 初版이나 修正版에서는 모든 標目을 한글로 하도록 하여 그 短點을 없애기는 하였지만 前述한 바와 같은 새로운 問題點을 유발시켰다.

KCR 修正版 91條(著者表示通則) b項에도 같은 문제성이 있다. 거기에 나타난 예를 보면 標目은 한글로 김 근수이고, 著者表示에는 漢字로 小溪學人이라 되어 있고 號라고 角括弧로 묶어 附記하여 주고 있으므로 역시 김 근수의 漢字形 이름(本名)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다음 예와 같이 漢字形의 이름을 著者表示에다 附記하면 그런 문제점은 해결된다.

[김 근수]편.

語源資料集成. 小溪學人[金根洙]編.

이와 같이 本名이 標目으로 될 경우에는 同名異人이 많기 때문에 號나 匿名으로 나타난 著者는 標目的 漢字形의 이름을 著者表示에 附記하여 兩者의 關係를 明確하게 接近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參照記入을 하면 된다고 主張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으나 目錄에 參照되는 사람의 稱號가 漢字形으로 나타나 있지 않는 한 아무리 參照카드를 만들어 주어도 完全하게 連結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조 지훈(趙芝薰)은

조 동탁(趙東卓)을 보라.

이 예⁴⁾와 같이 趙 東卓이란 漢字形名이 參照카드에 記載해 주더라

3) 日本圖書館協會 編, 日本目錄規則, 1965版, 東京: 同協會, 1978. pp.221-232.

4) 韓國圖書館協會 編, 前掲書, p.104.

도 目錄에 그 漢字形名이 나타나 있지 않으면 누구를 指稱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識別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號나 匿名은 同一한 漢字이나 本名은 同音 異漢字로서 다른 사람인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參照記入이 아닌 目錄에서 號나 匿名으로 된 著者表示에다 本名을 附記하려면 一般貫習에 따르면 된다. 號는 戶籍上의 이름과 字 이외에 隔이 없이 사용하기 위하여 他人이나 自己가 지은 이름이다. 그런데 號는 단독으로 記錄되기도 하고, 또 貫+號+姓名, 號+姓名, 別號+號+名 및 姓+號 등 복합적으로 記錄⁵⁾ 되기도 하는데 姓이나 名의 앞쪽에 온다. 그러므로 標目으로된 本名을 號로 된 著者表示에다 附記하려면 號 뒤에 가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姓과 號만으로 나타난 경우는 名만 號 뒤에 가도록 한다. 따라서 姓+號+名의 順이 된다.⁶⁾ 예를 들어 보자.

이 황

聖學十圖, 李 退溪〔滉〕著.

이번에는 匿名에 대해서 살펴 보자. 匿名이라고 하면 著者が 自己의 이름을 숨기기 위하여 敘述語나 一般의인 用語를 사용하여 表示한 것을 말한다. 그런데 KCR 修正版에서는 匿名의 한계가 애매모호하다. 그것의 36條(匿名圖書)에 보면 著者が 自己의 本名이 다른 이름을 使用하여 出版한 圖書를 匿名圖書⁷⁾라고 표현하고 예에는 趙 東卓의 號인 「趙 芝薰」을 「익명」이라고 記載하고 있다. 이것을 보면 號도 匿名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同規則 94條(著者表示에의 附記)에 보면 匿名 또는 號만으로 表示되는 圖書로서 著者標目이 本名으로 되었을 경우⁸⁾라는 표현이 있고 著者表示에 「春園」을 「호」라고 記載한 예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匿名과 號를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거기에 의하면 匿名이란 本名과 號 이외의 이름을 말하는 것 같다. 그러므로 字도 匿名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字는 中國, 우리나라에서 元服(冠禮) 때에 家名 외에 붙이는 成人의 別名이다. 諱, 諡와 함께 中國,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複名俗 또는

5) 千惠鳳, 古書分類目錄法, 下, 서울: 韓國圖書, 1970. pp.64-66.

6) 姓+名+號의 順으로 되면 姓+字로 나타난 著者表示 때 姓+名+字의 順이 되므로 號와 字의 區別이 어려움.

7) 韓國圖書協會 編, 前掲書, p.27.

8) 上掲書, p.71.

實名敬避俗의 하나로 만든 것으로, 그 근원은 실제의 이름을 꺼리어 부르지 않는 데서 나왔다. 禮記 曲禮篇 上과 特性篇 및 儀禮 士冠禮篇 등에 의하면 男子는 20세에 成年이 되고 관례를 행하여 成人이 되면 字가 붙고, 女子는 15세로 결혼하게 되어 비녀를 꽂으면 字가 붙으며, 字가 붙은 후로는 君父 尊長의 앞에서는 實名으로 사용하나 同輩, 벗, 그외의 사람부터는 字로 불리우게 된다. 字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중요하게 通用되지는 않았으나 中國의 一部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하게 通用되었다. 예를 들면 趙孟頫의 字는 趙子昂, 杜甫의 字는 杜子美, 韓愈의 字는 韓退之로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이다. 字자 나타난 類型을 살펴 보면 歷朝+貫+姓名+字, 歷朝+姓名+字, 姓名+字, 別號+姓名+字, 姓+字 등⁹⁾으로 이름 뒤에 온다. 그러므로 標目的 本名을 字로 된 著者表示에다 附記할 때는 字 앞에 하면 된다. 姓과 字만으로 나타난 著者도 역시 本名을 字 앞에 오도록 附記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한 유

昌黎先生集抄, 韓[愈]退之 著.

이렇게 하면 參照카드를 만들어 줄 경우에도 韓退之는 韓愈로 정확하게 接近되어 확인된다.

그러면 參照카드 作成方法에 대하여 한번 檢討하여 보고자 한다.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參照카드 작성 양식은 洋書目錄의 方法을 모방하여 3行으로 하는 수가 많다.¹⁰⁾ 그래서 採擇 안된 標目에 붙는 「은」「는」의 토씨를 떼어서 別個의 行으로 記載하여 우리의 文法原則에 어긋나게 하고 있다. 반대로 採擇된 標目에는 「을」「를」의 토씨를 붙여서 一貫性이 결여되고 있으니 그야말로 畸型的인 方法이다. 一例를 들면 아래와 같다.

조, 지훈(趙芝薰)

은

조, 동탁(趙東卓)을 보라.

이러한 방법은 양서목록의 참조기입카드 양식을 모방하여 3行으로 할려고 한데서 생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實情에 맞게 採擇 안되는

9) 千惠鳳, 前掲書, pp.64-66.

10) 張一世, 韓國目錄規則解說, 서울:韓國圖協, 1968. p.188.

標目の 토씨도 붙이고 述語를 뒤로 하여 KCR 修正版처럼 2行으로 하든지,¹¹⁾ 아니면 述語를 맨 끝에 別行으로 하여 3行으로 하는 것이 合理的이다. 3行으로 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조, 지훈(趙芝薰)은
조, 동탁(趙東卓)을
보라.

이때 「조 동탁」과 「보라」는 말의 行列이 서로 바뀌지만 인덴션(indentention)마저 바꾸어서 조 동탁을 세번째 인덴션에서 기재하고, 보라를 두번째 인덴션에서 기재할 必要는 없다. 그렇게 하면 採擇되는 標目인 조 동탁이 視覺적으로 확연히 들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著者表示와 標目이 달라질 경우 KCR 3版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살펴 보기로 하자. 1.1.5.1條(著者表示)에 보면 「著者表示는 標題面에 쓰여진 用字와 語順 그대로 기재한다. 만약 記述되는 그 이름이 그 著者에 대한 표준적 標目으로서의 이름과 다른 것일 경우에는 그 관계를 註記事項에 기술한다」¹²⁾고 되어 있고 다음과 같은 예를 제시하고 있다.

語源資料集成／小溪學人 編

주기에

小溪學人은 金根洙의 號임.

이와 같이 標目이 되는 小溪學人이나 金根洙가 註記事項에 漢字形대로 나타나니까 修正版처럼 標目이 한글로 되더라도 확인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러나 이 方法은 ISBD나 AACR과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어서 좋으나 號나 其他稱號를 많이 使用하는 우리 實情에는 다소 번잡한 감이 있다. 이를테면 著者表示에 나타난 小溪學人을 註記事項에 다시 한번 더 써주고 說明語를 붙여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古書의 著者는 거의 號를 爲主로 사용하기 때문에 古書目錄은 거의 이처럼 번잡하게 된다.

그러므로 著者表示가 號나 其他稱號로 되고, 本名이 한글로 標目이 되었다면 本名을 著者表示에 附記하면 간편해서 좋다. 이 方法은 이미 AACR 初版에서 東洋人의 著者는 그렇게 처리하라고 別途의 規定을

11) 韓國圖書館協會 編, 前掲書, p.104.

12) 韓國圖書館協會 編, 韓國目錄規則, 3版, 서울:同協會, 1983. p.36.

마련하고 있으나¹³⁾ KCR 3版에서는 그것을 택하지 않고 우리의 實情에 맞지 않는 一般規定을 따랐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AACR이나 ISBD 등의 目錄은 역시 單一文字를 사용하는 歐美國의 圖書目錄을 작성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므로 미국도서관협회 목록규칙이나 바티칸목록규칙처럼 漢字와 한글을 共用하는 우리의 實情에 맞지 않는 것이 많다. 그중에서도 代表的인 것이 前述한 著者表示의 附記에 관한 것이다. 그런 나라들은 同名異人의 著者가 있더라도 單一文字를 사용하기 때문에 文字上으로는 더 구분하여 접근시켜 줄 方案이 없으나 우리나라는 그러한 경우라도 公式的인 名稱을 거의 漢字로 사용하므로 더욱 細分하여 접근시켜 줄 수 있다.

母國語形의 文字로 된 이름은 없고 한글로만 나타난 外國人의 著者는 本名을 한글로 標目으로 하되 이와 같이 原名을 著者表示 뒤에 角括弧를 하고 附記하면 識別은 용이하나 記入體가 길어지는 短點이 있다.¹⁴⁾ 號나 字 등의 稱號는 記錄上으로 本名과 連記되므로 附記하여도 좋지만 한글로만 나타난 外國人 著者名은 母國語形의 文字로 된 이름과 別個로 使用되므로 著者表示에서 附記하지 말고 註記事項에 돌리면 좋을 것이다. 표목에서 외국인 저자를 표기할 때 한자로 나타난 일본인 저자나 중국인 저자는 그 나라의 한자음으로 한글 번자표기 하여도 좋다.¹⁵⁾

KCR 3版에서 著者の 標目을 指示를 할 때 文字나 形式이 다른 일일이 기재하고, 같으면 一般語로 「저자」라고만 기재하고 있는데¹⁶⁾ 이것은 이제 우리의 目錄에서 한글과 漢字의 性格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13)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prepared by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North American text, Chicago: ALA, 1967. pp.198-199, Additions to the author statement 2.

14) 母國語形의 文字로 된 原名은 한글 이름보다 길며, 또 著者表示가 많아지면 記入體가 너무 길어져서 좋지 않음.

15) 拙稿, “日書目錄에 있어서 標目的 表記에 관한 問題와 對策”, 한국비블리아, 第4輯, 1980. pp.1-21.

16) 韓國圖書館協會 編, 韓國目錄規則, 3版, p.90.

Ⅲ. 團體著者表示와 標目

KCR 修正版 91 條(著者表示通則)에 의하면 「著者標目は 한글로만 表示하는 것이 原則이므로 標題紙 또는 版權紙에 表示된 著者名形式으로 著者表示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一般的인 團體著者と 같이 誤解가 생길 虞가 없는 것은 著者表示를 省略하여도 좋다」¹⁷⁾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의하면 團體著者は 標目과 著者表示가 달라질 경우라도 混洞될 可能性이 없는 것은 著者表示를 省略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團體著者は 대개 著者表示를 省略하는 것이 一般的인 傾向이다. 그러나 團體著者도 個人著者처럼 거의 公式的으로 등록된 名稱은 漢字이므로 記載해 주어야 確認에 便利하다. 물론 그것이 한글이라면 省略하여도 되지만 漢字인 경우는 著者表示를 해주어야 記入體와 標目이 연결되어 識別에 별 支障이 없다. 그 條文의 예를 보면 「韓國의 圖書館」이란 冊의 標目は 한글로 「한국도서관협회」라 되어 있고 著者表示에는 省略되어 있으나 그 圖書에 나타나 있는 漢字名을 記載해 주어야 兩者가 完全하게 接近될 수 있다. 즉

한국도서관협회, 편

韓國의 圖書館, 韓國圖書館協會 編,

個人著者は 同一한 文字일지라도 조금만 形式이 달라지면 혼동될 虞가 없더라도 著者表示를 省略하지 않는 것이 通例인 것을 보면 漢字로 나타난 團體著者は 記入體에서 表示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團體가 出版者로써 한글로 標目이 될 경우에도 역시 漢字名稱을 記載하여 주는 것이 一貫性을 유지할 수 있어서 좋다. KCR 修正版 106 條(出版者の 省略)에 의하면 「團體著者가 標目일 때, 出版者가 標目으로 되어 있는 團體와 同一한 경우에는 出版者の 表示를 省略한다」¹⁸⁾고 되어 있으나 이것도 한글과 漢字의 차이를 생각치 않은데서 起因한 것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거기에 나타난 두개의 예를 보면 出版者欄에 梨花女子大學校와 保健社會部가 빠져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表示해 주면 한글 標目이 명확하게 된다.

17) 韓國圖書館協會 編, 韓國目錄規則, 修正版, p. 69.

18) 上掲書, pp. 76 - 77.

이화여자대학교

梨花七十年史. 서울, 梨花女子大學校, 1957.

한국. 보건사회부.

保健社會白書; 國民保健과 社會福祉

1964年版. [서울] 保健社會部, 1965.

KCR 3版에는 團體名이 標目으로 될 경우에는 著者든지 出版者든지 전혀 省略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解決한 셈이다. 거기에 나타난 예를 하나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¹⁹⁾

전국도서관실태조사/한국도서관협회 조사.

I. 저자

이것도 團體名이 한글로 나타나 있다면 個人名과 같이 標目을 指示할 때 一般어로 「저자」라고만 기재하고 있으니 역시 한글의 個別性を 인정한 셈이다.

아울러 前述한 個人著者나 團體著者の 標目に 附記되는 편, 역 등의 著作役割語의 記載方法을 考察하여 보자. 그 理由는 著者役割語와 標目은 不可分의 關係에 있으므로 함께 살펴 볼 必要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著者役割語는 同音異文字를 使用하므로 생기는 문제는 없으나 編著, 編譯, 譯註, 譯解 등 複合的인 著者役割語를 標目に 附記할 때 合理性이 없이 애매하게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KCR 修正版에는 그것에 관한 具體的인 條文은 없으나 각 예에 의하면 모든 著者役割語는 記入體의 著者表示 다음에 그 圖書에 나타난 대로 기재하며, 편, 역은 標目과 副記入에서 附記하고, 공저, 공편, 공역, 등역은 副記入에서만 附記하며 其他 著作役割語는 省略하고 있다. 이 方法은 著者名主記入目錄에서 一般的으로 취하는 것이다. KCR 修正版에 나타난 몇개를 예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²⁰⁾

김, 용보, 편

聯芳世稿, 金龍普編.

김, 병호, 역

密會, 金炳昊譯.

19) 韓國圖書館協會 編, 韓國目錄規則, 3版, p.91.

20) 韓國圖書館協會 編, 韓國目錄規則, 修正版, p.7,12,3.

차, 낙훈

商法大意, 車 洛勳, 鄭 熙喆 共著.

I. 정, 회철, 공저.

공편, 등편, 공역, 등역에 관한 實例은 없으나 편과 역에 종속되는 것이므로 標目에서는 해 줄 수 없지만 副記入에서는 반드시 表示해 주어야 한다. 原著者가 標目인 경우 共編者나 共譯者를 副出할 때는 맨 처음 사람을 공편이나 공역이라고 附記해서는 안되며 편과 역이라고 해야 한다. 그것은 共著者가 標目이 될 때는 공저라 附記치 않고 副記入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공저라 附記하는 原理와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이 편이나 역의 범주에 들어가는 著作役割語는 標目이나 副記入에서 表示해 주는 것이 일방적인 경향이다.

그런데 이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변칙적인 것이 있으니 編著, 編譯, 譯註, 譯解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標目으로 될 경우에는 어떻게 表示해야할지 그 기준을 세우기가 아주 애매하다. 目錄을 作成해 본 사람이면 누구나 체험해 보았을 것이다. 그래서 編著는 편으로, 編譯은 역이나 편 어느 한쪽으로, 譯註와 譯解는 역으로 하는 수도 있고, 또 그대로 편저, 편역, 역주, 역해로 하는 수도 있다. 前者와 같이 하면 다른 것은 문제가 없으나 編譯에서 문제가 생긴다. 역이나 편은 標目에서 반드시 기재해 주어야 하는데 複合되어 있다고 해서 어느 한쪽을 택한다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이다. 또 後者와 같이 그대로 기재해 준다면 單獨으로 된 著, 註, 解도 標目에 附記해 주어야 한다는 結論이 나온다. 그렇다면 그 解決策은 이것을 折衷하면 될 것이다. 卽 編著는 편, 編譯은 그대로 편역, 譯註와 譯解는 함께 역으로 표시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편과 역의 범위를 넘어서는 著作役割語는 標目에 附記되는 일은 없으므로 一貫性을 유지할 수 있다.

KCR 3版에는 記入體에서 著作役割語의 記載位置를 명확하게 明示하고 있으나 編, 譯 등에 관한 實例가 없어서 標目에서 著作役割語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아마 省略하는 方向인 것 같다.²¹⁾ 具體的인 것은 標目篇이 나와 봐야 알 것이다.

21) 標目에서 著作役割語는 省略하는 傾向이 많음.

IV. 書名表示와 標目

書名標目中 漢字書名인 경우 한글標記를 생략하는 것은 역시 한글과 漢字를 同一視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배열이나 검색이 불편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무용의 기본기입목록이나 열람용의 서명목록에서는 반드시 한글로 표기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일본도서나 중국도서를 표기할 때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漢字로 된 日本圖書와 中國圖書의 書名標目を 우리 漢字音으로 한글 翻字表記하느냐 아니면 그 나라의 漢字音으로 한글 翻字表記하느냐 하는 것이다.

日本圖書의 書名標目은 KCR 修正版의 예에 의하면²²⁾ 日本漢字音으로 한글 翻字表記하는 方式을 취하고 있으나 圖書館에서는 우리 漢字音으로 한글 翻字表記하는 方法을 많이 취하고 있다. 前者의 方式대로 하면 書名表示와 한글 標目이 가장 가깝게 接近되므로 理想的이다. 그러나 日語에 能通하지 못하면 이 方法대로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漢字로만 된 書名은 우리 漢字音으로 한글 翻字表記하고 漢字나 가나가 混用된 書名은 다음 세가지 方法으로 區分하여 表記한다. 그 類型을 살펴 보면 ① 漢字나 가나를 완전히 日本音式으로 한글 翻字表記하는 것 ② 漢字는 우리 漢字音으로 한글 翻字表記하고 가나는 日本音式으로 한글로 翻譯하여 表記하는 것 ③ 漢字는 우리 漢字音으로 한글 翻字表記하고 漢字나 가나로 구성된 말이나 가나로만 된 말은 한글로 翻譯하여 表記하는 것이다. 이 중에 편리한 것은 ③의 方法이다. 왜냐하면 漢字로만 된 書名을 우리 漢字音으로 한글 翻字表記하는 것을 前提로 하는 것이므로 漢字語는 그대로 한글 翻字表記하고 漢字나 가나로 구성된 말이나 가나로만 된 말은 한글로 翻譯하여 表記하는 것은 무리 없이 조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日本書名의 漢字語는 우리 漢字語와 同一한 것이 대단히 많은데 그러한 말은 翻譯을 하더라도 바로 翻譯이 되어서 처음부터 번역되는 말과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만약 ①의 方法 대로 하면 漢字로만 된 書名과 漢字와 가나가 혼용된 書名과의 表記가 달라서 일관성이 없으며 ②의 方法 대로 하면 書

22) 韓國圖書館協會 編, 韓國目錄規則, 修正版, p.8.

名中에서 漢字와 가나로 구성된 말은 韓國式도 아니요 日本式도 아닌 畸型的인 것이 된다.

中國圖書의 書名標目은 한글 表記와 接近시키자면 中國漢字音으로 한글 翻字表記하는 것이 좋으나, 中國語에 能通한 司書가 없으면 現實的으로 어렵다. 그래서 大部分의 圖書館에서는 우리 漢字音으로 한글 翻字表記하는 方式을 취하고 있다.²³⁾ 서명부출지서에서 漢字書名을 「서명」이라고만 기재하는 것은 한글과 漢字를 완전 동일시한 것으로 큰 문제이다. KCR 修正版 128條(副出指示通則)에 의하면 「各 副出記入은 目錄에서 使用하는 標目 形式 대로 表示한다. 그러나 그 圖書의 書名 그대로 副出할 경우에는 副出指示에는 단지 “서명”이라고만 記入한다」²⁴⁾고 되어 있고 예에는 漢字로 된 書名을 모두 「서명」이라고만 副出指示하고 있다. 이것은 역시 單一 文字만을 사용하는 歐美의 各種 目錄規則의 方法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글과 漢字는 別個의 文字이므로 그와 같은 方法으로 하면 어려운 漢字나 여러가지 音으로 읽는 漢字로 된 書名의 標目이 어떻게 表記되어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漢字로 된 書名은 標目이나 副出指示에서도 그대로 한글로 기재해 주어야 배열이나 검색에 편리하게 된다.

KCR 3版에서는 이러한 問題點을 완전히 解決하고 있다. 거기에서는 書名을 標出(書名主記入)하고 있는데 한글인 경우는 標目을 指示에서 省略하고 漢字인 경우는 한글로 標目을 指示에서 그대로 記載하여 주고 있기²⁵⁾ 때문이다. 이러한 方法은 歐美의 目錄規則을 완전히 消化시킨 所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書名標目の 表記에서 부수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冠稱의 取捨選擇에 관한 것이다. 冠稱을 포함시키느냐 제외하느냐에 따라서 表記와 排列이 엄청나게 달라진다. 그러나 冠稱은 복잡하고 애매모호하여 실로 어려우나 아직까지 別妙案이 없는 實情이다. 그래서 筆者 대로 그것의 처리방법을 논하여 보고자 한다.

23) 漢字書名標目を 그 위에 한글로 적게 表記하는 方法 대신 먼저 한글로 크게 기재하고 이어서 콜론 다음이나 圓括弧 속에 漢字書名을 附記하는 方法을 취하여도 편리할 것임.

24) 上揭書, p.92.

25) 韓國圖書館協會 編, 韓國目錄規則, 3版, p.91.

冠稱은 書名보다 작은 小字冠稱과 書名과 같은 크기의 大字冠稱 두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특히 問題가 되는 것은 小字冠稱의 처리이다. 大字冠稱은 書名의 一部로 처리하면 되지만 小字冠稱은 書名과 區分하여 처리하면 書名自體가 不完全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자.

- (피아노 오르간) 構造
- (通信事業) 經營合理化的 基本方向
- (商法實務) 書式法典
- (學習指導法改善을 爲한) 個別活動의 研究
- (書式全書) 強制執行
- (幼兒를 위한) 社會教育의 理論과 實際

위의 예에서 括弧속에 있는 小字冠稱을 떼어 버리면 書名이 不完全해진다. 이러한 경우는 오히려 그 冠稱을 書名의 一部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것이 그 圖書의 확인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별 의미도 없는 小字冠稱을 모두 이와 같이 書名의 일부로 간주하여 처리하면 더 많은 문제점을 惹起시킨다. 그러한 小字冠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실례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 (正本) 論語集註
- (譯註) 小學
- (主觀式) 憲法學
- (國家) 高等考試案內
- (秘話) 臨時首都千日

위의 書名에서 括弧속의 冠稱은 분리시켜도 그 圖書의 확인에 별 지장을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小字冠稱은 本書名과 구별하여 주는 것이 便利하다. 이와같이 小字冠稱은 意味가 強하면 書名의 一部로 처리하고 弱하면 書名과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理想的 이겠으나 그렇게 하면 書名標目的 表記가 目錄者의 主觀에 따라서 表記되어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冠稱에 대해서 KCR 修正版 90條에 보면 「書名의 冠稱이 二行 또는 一行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記載하지만 三行 以上으로 되어 있을 경우와 小字로 되어 있으나 너무 긴 冠稱은 二行으로 記入한다. 그러나 冠稱으로서 그 圖書의 改訂, 增補等を 表示하는 것은 版次事項

으로 取扱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冠稱으로서 目錄排列時 無視되는 것은 圓括弧에 넣어 本書名과 區別한다」²⁶⁾고 하여 관청의 처리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小字冠稱을 선별하여 처리하려고 하면 해결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것을 일관성 있게 처리하자면 일단 小字冠稱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될 수 있다. 즉 의미가 강한 小字冠稱은 그것을 제외한 書名을 標目으로 하고, 또 그것을 包含한 書名을 副出하여 주면 그러한 문제점은 해결될 수 있다. 그 까닭은 冠稱이 처음부터 無視되는 書名標目的 表記와 바란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卽 小字冠稱이 無視된 標目を 우선적으로 하기 위함이다.

KCR 3版 1.1.1.5條(冠題—本書名앞의 記載物)에 의하면 冠稱은 書名과 不可分の 關係에 있는 것은 活字의 크고 작음을 묻지 않고 그 全體를 하나의 書名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것을 보면 「本書名の 앞이나 위에 對等書名, 副書名, 雜題, 卷次나 回次나 年次, 著者表示, 版表示, 發行處名, 叢書名 및 그 밖의 어귀가 기재되어 있는 것은 각기 해당사항의 기재위치에 옮겨 적는다. 다만 두 要素사이와 같은 활자 크기로 같은 줄에 붙여 쓰여져 있거나 수식적 語尾나 전치사에 의해서 文法的으로 不可分하게 한덩어리로 연결되어 있을 때에는, 그 앞부분이 너무 장황하거나 뒷부분이 固有性이 약한 一般語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전체덩어리를 本書名으로 본다」²⁷⁾고 規定하고 있으니 역시 目錄者의 主觀에 따라서 取捨選擇되므로 前述한 바와 같이 表記에 혼란을 가져 온다. 지금까지 小字冠稱을 이러한 方法으로 처리한데서 문제점이 생긴 것이다.

大字冠稱은 本書名과 같은 크기의 活字로 되어 있으므로 書名의 一部로 처리하여 標目으로 하면 될 것이나 意味가 아주 弱한 것은 그 部分을 제외한 書名을 副出하여 줄 수 있다. 大字冠稱은 의미가 아무리 약하더라도 처음부터 書名의 一部로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전체 서명을 우선적으로 標目으로 한다.

小字冠稱이나 大字冠稱을 上記한 方法으로 取捨選擇하여 書名標目を 表記하면 檢索이 아주 便利하여 좋다.

26) 韓國圖書館協會 編, 韓國目錄規則, 修正版, p.68.

27) 韓國圖書館協會 編, 韓國目錄規則, 3版.

V. 結 論

記入體와 標目の 表示文字가 同一하면 대개 記入體에서 表示를 省略하지만 다르면 記載해 주는 것이 一般的인 原則이다. 따라서 漢字로 된 個人名이나 團體名이 한글로 標目이 되면 記入體에서 漢字로 表示해 주어야 標目과 記入體가 完全하게 連結되어 확인에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한글과 漢字는 共用되지만 個人名이나 團體名의 公式的인 名稱은 한글이 별로 없고 大部分 漢字로 되어 있으므로 한글로는 漢字名稱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漢字로 된 書名이 標目이 되면 그 위에 한글로 表記를 해주어야 相互連結이 되어 排列이나 檢索에 便利하다. 書名은 역시 漢字로 된 것이 많고 어려운 漢字나 여러가지 音으로 읽는 漢字가 종종 있기 때문에 表記를 해주지 않으면 排列에 곤란을 겪으며, 따라서 檢索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이와 같이 漢字로 된 個人著者나 團體著者를 記入體에서 省略하는 것이나 漢字로 된 書名의 標目에서 한글 表記를 省略하는 것은 單一文字만을 使用하는 歐美各國의 目錄規則方法을 그대로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즉 한글과 漢字는 別個의 文字인데 兩者를 同一視하여 처리하였기 때문이다. 그러한 問題點은 KCR 修正版이 아주 심하나 KCR 3版에 와서는 많이 改善된 상태이다.

그래서 漢字로 나타난 個人著者나 團體著者는 記入體에서 表示해 주어야 하는 理由와 거기에 부수되는 參照記入카드 作成하는 方法 및 特殊한 著作役割語를 標目에서 附記하는 方法을 高찰하여 보고, 漢字書名이 標目으로 되는 경우 한글로 表記해야 하는 理由와 그 때 장애가 되는 冠稱處理方法을 論하여 보았다. 그것을 條目別로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號나 其他稱號로 나타난 個人著者로서 本名이 標目으로 되면 漢字形의 이름을 慣用되는 위치에 角括弧로 묶어 附記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戶籍上 漢字形 이름(本名)을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이다. 字이면 앞에, 號나 其他稱號이면 대개 뒤에 이름을 附記한다.

漢字로 나타난 團體著者는 標目이 한글이지만 記入體에서 表示를 해 준다. 出版者가 標目이 되는 경우에도 漢字로 나타난 出版者는 表示

를 해준다. 그래야만 公式的으로 등록된 漢字形의 團體名을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標目으로 採擇 안된 著者를 標目으로 採擇된 著者로 參照記入을 할 때 「은」, 「는」은 반드시 붙여 준다. 우리말에서 토씨를 붙이는 것이 鐵則이기 때문이다. 토씨를 때는 현상은 洋書目錄의 參照카드作成方法을 모방하여 3行으로 할려고 하여서 생긴 것이다. 그것을 꼭 3行으로 할려고 하면 「보라」라는 말을 맨 아래 行으로 돌린다. 우리말은 述語가 뒤에 오기 때문이다.

著者標目에서 著作役割語를 附記할 때 編著는 편, 編譯은 그대로 편역, 譯解나 譯註는 모두 역이라고 記載한다. 그 이유는 編과 譯의 범위에 드는 著作役割語는 전부 기재하고 其他 著作役割語는 기재하지 않는 것이 一般的인 경향이기 때문이다.

漢字書名이 標目인 경우 사무용의 기본기입목록이나 열람용의 서명목록에서는 그 위에 한글로 表記한다. 漢字에는 어려운 글자나 여러 가지 音으로 읽히는 글자가 있어서 表記를 해주지 않으면 排列이나 檢索에 支障이 있기 때문이다. 書名이 漢字로 된 日本圖書나 中國圖書는 그 나라 漢字音으로 한글 翻字表記하는 것이 理想的이나 어려우면 우리나라 漢字音으로 한글 翻字表記한다. 그러나 가나와 漢字가 共用된 日本圖書는 漢字나 가나로 구성된 말이나 가나로만 된 말만 翻譯하여 한글로 表記한다. 日本書名에 나타난 漢字語는 우리말과 通用되는 것이 많은데 그러한 말은 翻字를 하더라도 바로 翻譯이 된다. 그러므로 翻字나 翻譯이 별 異質感 없이 적절하게 조화될 수 있다.

書名을 表記할 때 小字冠稱은 제외하고 大字冠稱은 포함시키는 것을 標目으로 한다. 그러나 小字冠稱이라도 제외하면 전혀 엉뚱한 書名이 되는 것은 그것을 포함한 書名을 副出하고, 大字冠稱이라도 의미 아주 弱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제외한 書名을 副出하여 주면 편리할 것이다.

Approach Method of Heading in Korean (Hangul) and Body of the Entry

Kim, Chi-woo*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KCR (Korean Cataloguing Rules), all headings should be done in Korean. But due to the existence of homonym, arising between Korean and Chinese character, both of them are used in Korea, it is impossible to distinguish original Chinese character of author's name.

Therefore, a method to correctly distinguish the Heading in Korean by co-writing Chinese character for headings in Korean character in the author space of body of the entry is presented.

* Assist professor of Library Science, Busan Sanub